

# 2013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 도덕 · 윤리

2차 시험	2교시	2문항 50점	시험 시간 120분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답안지는 문항당 2쪽(교시당 4쪽),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십시오.**
-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전용 답안지에만 작성하십시오.**
-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로 표기하십시오.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1번 문항, 1번째 답안지 표기		1번 문항, 2번째 답안지 표기	
예시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문항 1 전용 답안지	쪽 번호 표기란
		● ②		① ●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 단,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 하위 문항의 번호(1-1, 1-2)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 '끝' 자를 쓰시오**(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각 하위 문항에도 '끝' 자를 쓰시오).
- 답안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십시오. **초안 작성 용지는 답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기** 바라며, **종료종이 올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을 그으시오.
-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지에 작성한 부분
  -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
  - 답안 작성란 이외의 공간(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
  -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 번호,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 4쪽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갑:

- 밤사이에 길러진 기운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과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 사람이 금수와 다른[異] 점은 지극히 적은데, 범인(凡人)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성인은 그것을 간직한다.
- 무릇 유(類)가 같은[同] 것은 그 본성이 서로 같으니, 어찌 유독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성인도 나와 본성이 같은 유이다. 그러므로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발을 만들어도, 그것이 삼태기가 되지 않을 것을 안다.” 라고 하였으니, 신발이 서로 같은 것은 천하 사람들의 발이 같아서이다.

을:

-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안다.
- 학문하는 방법에는 끝이 있지만 그 뜻은 잠시라도 버릴 수 없다. 학문을 하면 사람이 되고, 학문을 버리면 금수가 된다.
- 모든 사람은 본성이 하나[一]로 똑같다[同]. 배고프면 먹기를 바라고, 추우면 따뜻하기를 바라고,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며, 다른 것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임금과 결왕도 같다.

〈보 기〉

전통적으로 어떤 낱말에 대한 정의는 그 낱말이 적용되는 대상이 속한 집합(외연)과 또 그 집합의 공통 특징(내포)을 지시한다. 이 집합에서 상위 집합을 ‘유(genus)’라 하고 하위 집합을 ‘종(species)’이라 한다. 유(類)와 종(種)에 따라 그 공통 특징도 달라진다.

3-1. 갑과 을이 각각 누구인가를 밝히고, 인간 본성에 관한 갑과 을의 주장을 그들이 제시한 사례나 설명을 들어 각각 정당화하시오. 그리고 갑이 주장하는 사람과 금수, 성인과 범인의 같음[同]과 다름[異]을 <보기>의 정의에 비추어 설명하시오. 【20점】

3-2. 을이 주장하는 수양론 혹은 학문 탐구 방법을 3가지만 제시하고, 이를 반두라(A. Bandura)의 관찰 학습(모델링)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다음 (가), (나), (다)는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이다. (가), (나), (다)에 대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과 그 의사 결정이 정당하게 되는 근거를 각각 서술하시오. 그리고 (가)와 (다)에서 모두 강조되는 시민의 ‘참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가) 논증적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처음 가졌던 자신들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서 수용한 공동의 확신 덕택에 객관적 세계의 통일성도 동시에 확인하게 된다. 합리적 동기에 의해 이성적 합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나 타협, 설득에 의해 합의할 수 있다.

(나)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공선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의지라는 원료로부터 시민의 의지로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 도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시민은 정치 문제에서는 비합리적 편견과 충동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리사욕을 품은 집단의 영향력에 아주 취약하다.

(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 얽힘으로써 정치가 관여하지 않는 사적인 삶의 영역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므로 정당, 의회와 같은 정치 기구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지역 공동체 등과 같은 시민사회도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자유와 개인 발전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데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